

buddhanews.com

# 여러분 살림살이 속에서 모든 걸 체험해보세요

## 25면에서 계속

런데 저는 굉장히 공부를 빨리 하고 싶어 하고 가능한 한 많이 하려는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스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는 스님께서 “오거 한번 해보세요. 오거 하면 아.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이 못한 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해주시면서, “진짜 한번 꼭 해보아지!” 그러면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표현을 하자면 너무 그것이 딱 맞는 것 같아서, 아주 조금도 틀림이 없는 거 같아서 그 맛에 반해가지고 스님께서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는 찾아가지고 가능한 한 전부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그런 걸 계속하려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스님께서 과연 그것이 잘하고 있는 건가, 잘못하는 건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음, 누구나 다 자기를 자기가 몰라서 길을 잃고 길을 헤매고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그거를 자기가 정립시키고 나가면서 체험하고 나가는 거죠. 체험하고 나가다가 보면 이제 ‘아,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아주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하는 거를 알고, 알았으면 그것을 놓고, 또 딱 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딱 짓도, 또 자연스럽게 오는 것도 대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모든 걸 이렇게 살림살이 속에서 모든 걸 다 해보세요. (가슴을 가리키시며) 찍어서 안 먹혀지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을 다 한 주먹 안에다 넣고 한 입에 넣어넣으려도 넣어넣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도리를 아셔야 돼요. 이 삼라만세계를 한 주먹에 넣고, 한 입에 넣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영묘한 까닭이고, 무변한 까닭이고, 체가 없는 까닭이죠. 지금 여기에서 앉아서 마음이 저 미국에서 “스님, 이리이러한데요, 오시겠어요?” “알았다, 오바.” 하하하. “오시겠어요?” 하고 “오바.” 하면 여기서 “알았다.” 하고 “오바.” 해서 그냥 그 참 나할나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체가 없는 모습인 까닭이죠. “알았다.” 이거는 (가슴을 가리키시며) 방편이다 이겁니다. 그 방편이 있는 반면에 진실이 있고 진실한 참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부처의 도량은 아주 그냥 이 허공 안에 꽂았는데, 여러분도 여기 지금 이 몸이 부처의 도량이거든요. 한 도량이거든요. 그리고 몰아서 보면 지구가 한 도량이고, 또 몰아서 보면 그냥 우주 전체가 한 도량이고요. 그러니 그 ‘오바’ 하는 거는 방편이 지마는 ‘알았다’ 하는 것도 ‘오바’ 나 똑같은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밀고 가까움이 없이 행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따라 쓸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거 중생이 뭐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아주 믿지들을 알아야. 자기 부처를 자기가 믿지를 않고, 이론이 많고, 사인이 많고, 착이 많고, 또 그냥 한꺼번에 공부를 열려 해버리려고 하죠. 얼른 해서 될 일입니까? 이게?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이렇게 체험하면서 돌아가야 되는 건데요.

그게 점수(漸修)입니다. 점수!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돈오(頓悟)라면 이 세상에서 살고 느끼고 알고 배우고 나가는 게, 깨닫고 나가는 게 그게 점수죠. 그래서 돈오와 점수는 둘이 아닌 반면에 알게 되면 바로 돈수(頓修)가 된다. 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합해진다. 돈오와 점수가 둘이 아니라 합해진다 이런 거죠.

하여튼 공부 잘 하세요. 부산을 가는 길이라면 한 대구쯤 갔다면 이리로 가는 게 빠르나, 저리로

심었더니 콩짜이 났어. 뿌리로 화해가지고 씹이 났다고요. 씹이 났는데 그 씹이 그 뿌리에 의지를 해야지, 그렇지? 뿌리에 의지를 해야 씹이 잘 되지? 그리고 또 콩짜이 열리지? 콩짜이 피고.

그럼으로써 또 콩나무가 자기 내년을 기억한다는 생각도 없이 영원히 지속해서 이어가는 거야. 그 생각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이어가게 돼 있던 얘기가. 그러면 자기 뿌리는 자기 씹을 위하고 자기 씹은 자기 뿌리를 연상하고, 즉 붙들고 믿고 나가야지, 그런데 그 콩이 말아야, 뿌리로 화했는데 그게 무슨 콩이냐고 그럴 거냐 이거야. 그래서 무슨 콩이냐고 한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찾으려고 아무리 뿌리를 헤쳐봐도 콩이 없더라 얘기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과거로 돌아가서 콩씨를 찾으려고 그래도 콩씨는 없고 자기 몸에, 즉 콩나무 안에 콩씨가 있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콩씨가

이겁니다. 세알 잊어버리듯이 자식들도 잊어버리고 새 새끼가 죽거나 또 채가고 먹히듯이 그렇게 당하고 살지 않으려면 이 도리를 알아야만 되는 거죠. 새 새끼만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강하게 스스로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즉, 소인을 꼭 해야 지키고 간다 이겁니다.

언어나 뭐 뱀 새끼나, 뭐 뱀도 여러 종류지마는 종류대로 자기 몸을 희생해서 새끼를 살려서, 즉 말하자면 자기 몸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는 짐승은 다 자기가 희생하고 들어가. 자기 고통이 즉, 옷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딱 자기 새우를 많이 내놓고는 자기 현상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 즉, 부모가 죽어버리는 거 이런 거 있지요? 고통이 벗고선 또 새 알맹이가 나오고 말아야. 또 다른 벌레가 또 다른 벌레로다가 진화하고 이러는 거 많이 보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도 역시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 마음이 차원에 의해

그저 잘못되든지 잘되든지 내가 딱 그릇에 들어가보고, 그냥 아무 데라도 들어가보고 그걸 체험을 하고 들어가야 돼.

**질문자(5남):** 저는 광주지원에서 왔습니다. 저는 작년 5월 18일 고혈압으로 인해서 증풍에 고통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걸지도 못했고 그런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큰스님 덕분에 이 법당에 걸려와서 큰스님 법문을 받들게 된 것은 다 큰스님의 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에 주인공에게 믿고, 놓고 공부 많이 해왔습니다. 현재 왼손이 아직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께서 마음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그런데 만 사람들 같으면 이견 의사가 하나만 잘 고쳐봐도 아주 싱겁고 좋아서 모두 야단들이죠. 신기하고. 그렇지만 이거는 본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기에 때문에 그렇게 신기하고 좋고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몸뚱이 하나의 개체를 놓고 볼 때에 내가 꼬집어서 내가 했다는 게 어딴습니까? 네? 더불어 그냥 꼭 찾는데요. 그러니 서로 더불어 했으니가 누가 했다. 이게 했다. 저게 했다 간장 공장에서 했다. 위 공장에서 했다. 콩밭 공장에서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전체가 다 움직여버린 거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면 부처님 아닌 게 부처님이죠. 어떤 거든지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부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니깐요. 그러니까 그 속의 의식들도 다 그 주인공하고, 다스리는 주인공하고 한 케이스가 돼서, 부처 중생이 둘이 아닌 한마음이 돼서 그렇게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죠.

**사회자:** 질문이 이제 없습니다.

**큰스님:** 예. 본래 이 세상의 진리는 질문도 없고 질문 안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묵묵히 푸르고 묵묵히 흘러가고 묵묵히 화산이 일어나고, 묵묵히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과학 연구를 하게 만들고 재료가 되게 하고, 모두 그렇게 서로 돕고, 하 다못해 재미 하나도 들지 않는 게 없어요. 진릿물이 먹으면 풍뎡이 벌레가 와서 진릿물을 다 먹어 치워 주거든요.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잘 활용한다 하면 모든 걸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요. 정말입니다. 이걸 사실 이니까요. 생활 속에서 그렇게 아주 편리하게 사시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위 법문은 1996년 6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그저 잘되든지 잘못되든지 내가 딱그릇에 들어가보고 그냥 아무 데라도 들어가보고 그걸 체험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가는 게 빠르나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길을 가는데 틀림없는 이 길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믿죠? 믿으니깐, 그 믿는 마음으로부터 거를 또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예.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 공부할 땐 뭘 별의별 걸, 똑같은 방편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여복하면 부처님을 찾는데 ‘아! 과거에 살던 이놈아! 영원한 친구야 이놈아!’ 이렇게도 찾는 사람이 있고요.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 사실이니까요. 자기 전 조상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이름을 다 부르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이름이니까요. 진실만 똑같은 되죠.

**질문자(4여):** 스님, 만나뵈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대전지원 청년회에서 왔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말 작은 미생들에서부터 지금 사람 몸에 이르러까지 계속 나고 죽고 나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이 자리까지 정말 귀중한 생명을 얻어서 오게 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변하면서 왜 된가 찾아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할까? 저 콩나무로 표현을 할까? 콩이 말아야, 콩씨가 있어서 땅에다

아직 안 열린 콩나무는 콩씨가 잘 되게 쫓아 피고 콩씨가 열리게끔 뿌리에게 거름을 줘라. 이런 거는 뭐냐 하면 모든 거를 믿고 거기에 의지하면 콩나무는 거름이 된다. 그 마음이 말이에요. 거름이 돼서 그 콩나무를 푸르게 만들고 쫓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나무에서 무르익게 하고, 그래서 모든 만민을 또 먹이게 하고, 되나게 하고, 되남아서 또 심어서 또 먹이게 하고, 그러니까 일체 만민만생이다 그러하다 이거야.

새들도 뭐 자기가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런 것도 없이,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려고 애를 쓰고 주워다 먹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도 누구한테 알을 뺏기면 속수무책으로 그냥 쳐다보고 울고 서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자식을 기르다가 어찌다가 그냥 보이지 않는 데서 만약에 채갈 때 그냥 누가 채가든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 어떡해요? 보이는 사람이 때려서 죽었다면 그냥 사생결단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채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공부, 마음공부를 해야지, 사는 날까지는 꼭 편안하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콩씨가 다 머물러 심을 수 있게끔 된 연에 콩간지가 벗겨져야지 정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깐 인간도 그렇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사는 날까지 꼭 틀림없이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정상적으로 기르려면 이 도리를 알아야 한다

서 바꿔짐으로써 모습도 바뀌지요. 현재 모든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내 체질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이 낡은 사람이 ‘순산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순산지 못하게 될 때는, 즉 말하자면 거꾸로 있거나 뭐 잘못됐거나, 태반이 기울어졌다거나 이런다면 벌써 거기가 다 관하면 그 태반도 울바로 세워지고 또 거꾸로 있던 아이도 바로 세워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야. 그 속에 소인 많은 공장에서도 다 너 나 할 거 없이 통신이 정수에서, 대뇌에서 사대(四大)로 통신이 가면 다 그렇게 작용을 해주게 돼 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해야만 대뇌로 통신이 된단 얘기가.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무턱대고 생긴 인간이 아니! 이것도 과학적이고 이것도 컴퓨터가 벌써 자동적인 컴퓨터가 머리 위에 달려 있어. 대뇌가 인간 컴퓨터야. 오신통이라고 하는 바로 머리의 누진(彌進)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자동 컴퓨터거든요.

그러니까 입력된 거를 지울 수도 있고 입력된 거를 입력된 대로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게 바로 누진이에요. 컴퓨터를 만지는 주인이다 이 소리입니다.

**질문자(4여):**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렇게 하면서도 아리송하지? 하하하.

# 무혈, 무통, 무약, 무수술!! 세계최강 최고수 活人秘法 전수교육안내



### [장한빛 仙師]

- 독립 East West Alternative Medical Center 특수침술교육 압동 난치병 공동연구
- 중국연변대학교 중의학원 객좌교수
- 동아대학교 대체의학 최고위 과정 교수역임
- 애타계 찾았던 숨은 명의 50인 선정
-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특별강연

“압행력의 힘이 보인다면”  
“아, 이제 나는 살아있구나!”  
등 7권의 권강서적 집필

- 23년이란 오랜 세월 속에서 마침내 다이아몬드를 찾아냈습니다. 의학의 본고장 독일에서(EastWest Alternative medical center) 세계최강, 최고수 의술임을 인정 받았습니. 이제는 5000년 단군역사시대 東西洋의 의학교과서를 새로써야 할 때입니다.
- 그동안 수십 명에 달하는 분야별 최고수(선지식)들을 만나 醫道와 仁術을 깨우쳤고, 현대의학에서 포기한 수백 명에 달하는 말기암환자와 난치성희귀병(파킨슨, 아토피, 간질, 치매 등) 환자를 상대로 고귀한 임상체험을 통해 생명 살리는 비법을 축적해 왔습니다.
- 群盲撫衆이요 管中窺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만의 잣대로 虛空을 채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最上手라고 생각되어 한수 배우려고 찾아갔다가 돈과 시간만 허비한 채, 패색하고 허망한 마음으로 돌아오던 쓸쓸한 지난시간들이 생각납니다. 이제는 名實공히 세계와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 최상의 活人기술임을 세상에 알리고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수해드리고자 합니다.
- 교육기간동안 각자가 모시고온 환자를(어떠한 난치, 고질, 희귀병 환자도 관계없음) 대상으로 實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최단기간 내 완벽한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전수교육 일정을 5박6일장으로 최대한 축소, 단축하여 시간과 재화의 낭비를 줄이도록 배려하였습니다.

- 침술, 교정법, 경혈 등 인체의 구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완전 초보자부터 침술 등 대체의학 전통의술 30년 大家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전수 가능 하도록 복잡한 이론은 최대한 배제하고 실기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 본 전수교육을 수료한 분들에게는 “제 3의학 아카데미” 평생회원증을 발급하여 정기적인 학술모임을 통해 각자의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고 더욱 체계화 된 완벽한 활인기술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학술적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 昨今の 우리나라 대체의학 전통 민중 의술의 현주소를 바라볼 때, 재야의료인의 한사람으로 비애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개인의 의술과 능력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해도 현행 의료법, 약사법, 보건법칙 단속법상 저축이 되면 엄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운영의 妙를 잘 살리시어 최악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겠습니까.
- ※ 본 활인비법은 현행 의료법이나 보건법칙내속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弟者** 세계최강, 최고수 활인비법전수/ 宇宙命理思想, 秘方침술正骨整體 등 자연의학, 전통의술에 관심 있는 분/ 주경야독하면서 醫通君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제자를 구합니다.

### 전수교육 내용

#### ◆Triple combination therapy (三正요법)

- 1) 正骨整體: 척추뼈와 골반뼈의 변형이 만병의 根源
- 2) 正血清血: 전신의피기압이아 無病長壽 (15개연თ論)
- 3) 正氣(通經活絡): 전신의 氣가 疏通하여 無病長壽 (氣塞則死)

**내과적영역** 초, 중말기암, 갑상선, 이명, 난청, 중이염, 약사, 퇴관절장애, 배개장, 아토피, 건선 등 약성피부병, 다한증, 비염, 축농증, 대상포진, 간질, 뇌경색, 치매, 불면증, 간경화, 간염, 역류성식도염, 위궤양, 수면무호흡증, 심한코골이, 심근경색, 협심증, 폐질환, 약성변비, 비만, 투석전신장병, 고혈압, 당뇨, 전립선, 요실금, 자궁근종, 물혹(파킨슨, 루게릭은 임상중)  
※ 10년~20년 이상된 각종 난치고질병이 5회~10회의 시술로 사라집니다.

- ▶ 교육장소 : 강화도 한빛 修練院 (전등사인접)
- ▶ 교육기간 : 5기 \_ 6월 15일~ 6월 20일 [5박6일] (선착순 12명)  
6기 \_ 7월 6일~ 7월 10일 [5박6일] "
- ▶ 전수교육비 : 200만원 (숙식제공) 농협) 136-12-537835 (예금주:김재정) 1, 2, 3, 4기 수료생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주최: 제 3의학재단 설립 추진 위원회  
후원: 한빛웰빙건강 창업 지원센터 (피부, 비만, 통증) 한빛웰빙건강문화원 (전국지역별 지부설립문)

**외과적영역** 경추디스크, 허리디스크, 안면마비, 모든 종류의 두통, 삼차신경통, 좌골신경통, 골반통, 항강통, 어깨결림, 오십견, 테니스, 골프엘보우, 수족마비, 척추관협착증, 감지성척추염, 3.4기골다공증, 하지무력증, 통풍, 류마티스, 퇴행성무릎관절염, 약성무증, 중풍후유증, 뇌성마비, 생리통, 체머리증, 수전증, 족저통, 교통사고후유증 등 모든 종류의 통증질환  
※ 10년~20년 이상 된 묵은 통증이 5분 1회의 시술로 그 자리에서 즉시 90%이상 사라집니다.

시간을 낼수 없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의사, 한의사 및 스님, 목사님들을 위한 주말반(매주 토 13시~ 일 17시) 교육을 별도 전수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토) ~ 21일(일) 선착순 12명

안내문의 **www.HANVIT.tv**  
전국대표 ☎ 1588-7638

•참가대상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 한방 의료관계자(동종클리닉,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등 의료인상담환영) 물리치료사, 중의사, 침, 뜸, 부항사혈요법사, 수기치료사(지압, 카이로프랙트, 추나요법)등 재야의료인, 氣치료사, 스님, 목사님, 태권도, 합기도, 체육관, 수련원, 단식원, 의료기흥보관 운영자등 웰빙 건강사업 종사자, **대체의학 및 전통의술에 관심 있는 분, 각종 난치, 고질, 희귀성 질환자 가족분**